재외동포의 창

2013 3월호

특집 : 4~7
한민족 정체성 심는 '한글 교육과 한글학교'
동포사회 교육 역량은 대한민국의 역량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고려의 향기 품은 천하명품 청자

중국 북송의 유명한 문장가이자 시인이었던 소동파는 천하명품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 두 가지가 고려 것이었다. 고려청자와 종이가 그것이다.

청자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낸 그릇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중의 하나다. 송이나 고려대에는 청자가 세계 최고의 그릇이었다. 청자가 백자까지 능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미학적으로는 몰라도 기술적으로는 백자가 청자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다.

청자는 옥을 인조로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중국인들은 이런 옥을 흙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 질그릇에 앉은 재가 푸른색을 내는 것을 보고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청자는 중국의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앞섰다. 상감 기법과 뛰어난 비색이다. 고려는 상감 기법을 도자기에 처음 응용했다. 비색은 중국에도 있지만 고려청자의 비색은 신비로울 정도로 뛰어났기에 중국인조차도 갖고 싶어 했다.

목차 2013 3월호

2 **한국의 얼** 고려의 향기 품은 천하명품 **청자**

3 **목차**

4 **특집** 한민족 정체성 심는 한글 교육과 한글학교
"재외동포사회 교육 역량은 대한민국의 역량"

8 **한민족공감** "日은 역사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朴대통령, 3·1절 독립유공자 75명 훈·포장

10 **기획** 차세대 육성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올해 2차례 1천 명 모국에서 역사·문화 체험

12 **화제** '재외동포 이해' 한국외대 첫 강좌 개설
재단, 중고생·대학생 찾아가는 이해교육도 대폭 확대

14 **현장의 목소리** 3.1절, 세계곳곳서 "만세" 동포사회 민족혼 기리다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16 **OKF뉴스**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북한 핵실험 규탄 외

18 **지구촌 통신원** 지루한 천국은 없다.
수 양(Sue Yang) 보스턴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20 **동포 이민사** 투자·전문인력 이민 늘어 주류 진출 활발한 캐나다 한인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22 **글로벌 코리안** 주류사회 봉사와 참여로 한인 위상 높인다
그레이스 유 한미연합회 사무총장

23 **동포문학** 북구의 하늘
지한나(스웨덴) 2011 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

24 **나의 살던 고향** 벚꽃이 곧 천지에 흩날릴 그곳… **진해**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재외동포재단은 교육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 학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동포 학생을 비롯한 석·박사 과정까지 선발하여 수학기간 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학사지침 설명회'를 열었다.

재외동포의 창

발 행 인 : 김경근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 행 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 작 : 연합뉴스
인 쇄 :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에 산재한 2천여 한글학교에서 약 15만 명의 한민족 후손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해외 거주하는 720만 재외동포에게 자녀 교육만큼 중요한 관심사는 없다. 한글학교는 동포 2세들이 우리말과 얼을 알면서 거주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 국제화시대에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이해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자원봉사를 마다않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글학교 교사의 노고가 동포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

한민족 정체성 심는 한글 교육과 한글학교

"재외동포사회 교육 역량은 대한민국의 역량"

재외동포의 민족교육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구촌 한인들의 삶이 국제화, 광역화 되면서 거주국으로 귀화하는 한인의 증가, 거주국 국민과 혼인 급증, 민족 언어 상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해 민족 공동체가 점차 사라져갈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이대로 방치하다간 10년 안에 민족교육이 파탄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태인의 오랜 생존비결에서 보듯이 교육은 중요하다. 재외동포의 민족교육은 해당 거주국 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향후 한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국내외 동포 모두에게 뿌리내려야 할 시점이다.

100년 대계로 교육투자 필요

우리 선조들은 민족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그리고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자결 · 자강 운동 차원에서 민족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창씨개명과 조선어 금지 등 일제의 동화정책에 맞서 우리말과 글과 역사와 문화를 유지 · 계승 · 발전시키려는 민족교육 운동은 나라사랑과 독립운동의 한 방략으로 승화되기도 했다.

오늘날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들의 우리말과 글 사랑은 선열들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 비록 재외동포 사회의 리더십이 점차 1세대에서 2~3세대로 교체되고, 차세대들이 주류 구성원으로 유입되면서 민족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류 확산과 함께 최근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려는 동포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민족교육은 이민족 사회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자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정신적인 기둥으로 삼아 이민족과 공생하면서 떳떳이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예전과 달리 최근의 민족교육은 민족 정체성 교육과 거주국 시민교육 양자를 아우르고 있다.

자아정체성 확립에 애를 먹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우리말과 글을 접하면서 자신과 부모세대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민족교육 차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말한다. 이는 한 집단의 정체성이 뿌리내리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재외동포재단은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떠나 살고 있는 전 세계 720만 재외동포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재외동포재단의 모든 교육지원 사업들은 100년 후에 펼쳐질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상을 바라보면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적 유대감 형성이라는 긍정적 목표에 가장 먼저 도달한 한글학교의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다. 재외동포재단의 민족교육 지원은 한글학교 사업 등을 토대로 차세대 인재개발과 거주국 네트워크 구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언어뿐만 아니라 얼을 가르치는 한글학교

재외동포교육의 주 대상은 일시적인 해외 체류자보다는 정착성을 지닌 영주 동포와 자녀로써, 지역적으로 일본 · 북미 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해외취업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중동 지역의 일시 체류자에 대한 교육도 점차 비중이 높아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세계화에 따라 러시아 · 중국 · 동남아 등에 대한 재외동포교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말과 얼을 가르쳐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일은 동포사회와 모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

한글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자원봉사로 길게는 30년 이상 근속하며 차세대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교육 여건은 열악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학습법을 익히는데도 열심이다.

시되고 있다.

재외동포 후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다차원적인 의미를 갖는다. 민족적 자존과 정체성을 유지 ·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시대 재외동포 후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인류사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시대 조류에서 민족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물론 동포 후손의 역량이 커지면서 민족의 역량이 함께 강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재정 및 인적 자원이 열악한 상황이라 대부분 주말 한글학교의 형태로 교육을 유지하고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길게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며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최정인 세계한글학교협의회장은 "일선 교사들이 우리말과 역사 등을 교육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재 지원을 비롯한 재정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만들어 주는 한글교육 교과서는 잘 되어 있어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교재 수급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조항록 상명대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장은 "재외동포가 한민족의 저력으로 우뚝 서고 앞으로도 민족 간의 경쟁에서 한민족의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한글학교'"라며 "민족적 정체성도 키우고 현시대에 요구되는 역량도 키울 수 있으니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에 산재한 2천여 한글학교에서 약 15만 명의 한민족 후손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창

한국어 · 음악 · 무용 등 다채로운 문화학교

개교 40년 맞은 뉴욕한국학교

올해로 개교 40년을 맞은 뉴욕한국학교(교장 최선경)는 학교를 다녔던 이민 1.5세와 2세들이 성장해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만큼 역사와 전통이 깊다. 최 교장은 "2세대 가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있기까지 코리안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교사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허병렬 이사장은 "뉴욕한국학교는 한글 ·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서예, 태권도, 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인 문화학교"라면서 "한인 학부모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모국어 교육에 관심 갖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한국학교는 40년 전인 1973년 브롱스 리버데일 소재 존 F 케네디하이스쿨에서 개교한 이래 오늘날까지 5천 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특히 이 학교를 거쳐 간 수많은 교사들은 현재 뉴욕 · 뉴저지 일원의 한국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학교는 지난해 뉴욕 총영사관이 공모한 역사교육 연구시범학교에 응모해 선정됐다. 시범학교는 연간 2천~3천 달러의 운영지원금을 받게 되며 운영현황 결과 평가에 따라서 우수학교에는 추가 포상금도 지급된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학교 내부의 수업내용과 운영방식을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받는 방식은 전 세계 한국학교 중 뉴욕 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교육사례를 주변에 전파하고, 전체적으로 한국학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에는 개교 4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어린이 연극 A에서 Z까지'를 강연했다. 롱아일랜드시티 한국문화센터에서 열린 강연은 허병렬 이사장이 맡아 진행했고, 한국학교 교사와 연극 애호가는 물론 학부모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뉴욕한국학교는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나 문법, 작문, 한국문화 등의 교과학습 이외에도 학부모를 위한 평생교육대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서예나 사군자, 컴퓨터, 교육상담이나 세미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에네켄 후손에 한민족의 자긍심 심는다

멕시코 무지개한글학교

1999년 멕시코 유카탄의 캠쿤에 세워진 무지개한글학교는 한인 후손들에게 우리말과 역사, 문화 등을 가르쳐오고 있다.

김무선 교장은 "에네켄 후손이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99년 12월에 27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15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0년에는 연합선교회 지원을 받아 교사를 신축했다. 현재는 교실이 6개로 기자재를 갖추고, 유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한글과 영어, 수학, 컴퓨터, 태권도, 악기 등이다.

무지개한글학교는 유카탄반도 최대 도시인 메리다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걸리는 캠쿤의 레판 마을에 있다. 당시 학교 건물을 지을 땅이 없어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려고 하자 마을의 학부형들이 모여 즉석에서 학교 부지를 기증해주기도 했다.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학부형들이 학교의 소중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나오면서 국내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고국의 대학에 유학생을 보내기도 했다.

사막에서 무궁화 꽃을 피운다

아제르바이잔 바쿠한글학교

바쿠 한글학교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에 한인자녀들을 대상으로 문을 연 학교다. 1998년도 2월 13일 전교생이 두 가정 5자녀로 시작했다. 자녀들의 모국어 교육을 위해 시작했던 수업이 현재 45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는 학교로 성장했다.

바쿠는 카스피 해 서쪽, 터키와 이란의 접경에 위치하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다. 바쿠한글학교의 수업은 매 주 토요일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위주로 하여,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쿠 한글학교의 김진경 교장 선생은 "한글학교가 이토록 성장한 것은 선생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열정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바쿠 한글학교는 학생들의 높은 독서량과 뛰어난 글짓기가 잘 알려져 있다.

바쿠 한글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교사가 되어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매 학기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돋보이는 특징이다.

김 교장은 "여러 학부모들을 통해 다양한 특강을 들으며 많은 학문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바쿠 한글학교의 자랑"이라며 "타 기관의 제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지기에 더욱 창의적인 배움터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글학교 학생이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문학상' 에 응모해 청소년부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타기도 했다. 일기쓰기 권장과 산문집 발행 등 글쓰기에 특별히 열정을 쏟고 있어 차세대 동포문학도를 배출하고 있다.

다문화 자녀 교육에 앞장선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밀알한글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밀알한글학교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지회가 한글전파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주말한글학교다.

2006년 3월 한인 밀집지역인 자카르타 인근에 위치한 땅그랑 학교에 이어 그해 12월 찌까랑과 자카르타, 그리고 2011년에는 땅그랑 찌꾸빠 학교가 차례로 개교했다.

처음에는 우리말과 문화를 배우려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어머니, 그리고 외국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한류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대상이 확대됐다.

인도네시아는 현지 여성들과 결혼한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외치는 이유이다.

찌까랑 밀알학교에서 현지인 성인 반을 지도하는 김석주 선생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 노래, 드라마와 연예인을 잘 알고 있어 한류를 실감한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간단한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한국문화를 전파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정업무도 함께 맡고 있는 김석주 교사는 "현재 밀알학교는 각 교실의 특성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교재와 한국학교의 교과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현지에 맞는 교재, 특히 어린이용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

“日은 역사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朴대통령, 3 · 1절 독립유공자 75명 훈 · 포장

박근혜 대통령은 3 · 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을 촉구했다.

제94주년 3 · 1절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거행되는 첫 국경일 행사로, 독립운동 관련 단체를 비롯해 3부 요인과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사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사회 각계 대표, 청소년 등 약 3천명이 참석했다.

3 · 1절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의 기념사, 3 · 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국내 · 외 사료 등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고 김화서 선생 등 독립유공자 75인을 포상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대표적 다문화가정 출신 가수인 인순이씨와 역경을 이겨내고 야식 배달부에서 ‘희망 배달부’로 변신한 성악가 김승일(36)씨가 함께 애국가를 선도해 주목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뤄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세대에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된다”면서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책임을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해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한다”며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오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도 안팎의 숱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자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유철 광복회장 등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월 28일 독도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독도학교' 개교식에 참석한 가족들과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독도학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응, 독도 관련 지식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국력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지금 복지에 사각지대가 많아 노후가 불안하고 기초적인 삶조차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며 "새 정부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4주년 3.1절 기념식에서는 75인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정부 훈장과 포장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포상자 중 72명은 정부가 발굴한 유공자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포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대한민국장 30명, 대통령장 93명, 독립장 806명 등 모두 1만 3천167명에 이른다.

독도학교 개교 '대국민 역사교육' 시작

독도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국내 첫 독도교육 전문기관 '독도학교'가 2월 28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개교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보훈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국민에게 제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식시키고 ▲체계적 역사 체험학습을 통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영토주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독도학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관련 지식을 국민에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독도학교 개교식에는 김능진 독립기념관장, 서경덕 초대 독도학교장, 이정근 해양경찰학교장, 이승진 독도박물관장, 윤홍철 독도의용수비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 개교식장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독도학교에 첫 참가 신청을 한 60여 가족 등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특히 국내 주요 언론과 일본 NHK,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도 취재에 나서는 등 개교식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독립기념관이 운영하는 독도학교는 오는 4월부터 독도가 명백한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하게 된다.

초대 교장에 취임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우리 땅인 것을 구구하게 대꾸하기보다는 논리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아름다운 독도를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직접 가서 체험토록 하는 산 교육을 할 것"이라며 "일본의 독도 도발이 멈추는 날까지 독도학교를 짜임새 있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능진 독립기념관장은 "독도학교는 국민의 성원으로 이뤄진 독립기념관에서 가장 큰 국민의 성원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행사"라며 "독도학교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독도학교는 연간 2천980명을 대상으로 ▲초등단체 교육(1천500명)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360명) ▲전시관 교육(960명) ▲독도 현장답사 교육(160명) 등 4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영토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2010년 독도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2011년 독도에 관한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지난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연간 10시간의 독도 관련 수업을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유하고 있다. 창

차세대 육성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올해 2차례 1천 명 모국에서 역사 · 문화 체험

재외동포사회의 역사가 진전될수록 차세대 동포의 수는 늘어나고 주류사회로의 진출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의 중요성이 대내외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앞으로 거주국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이들을 모국으로 불러 연수와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는 민족 정체성을 고양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일학교, 농촌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 풍성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 1천여 명이 모국의 사회, 역사,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기 위해 올여름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오는 7월 16일~23일과 7월 30일~8월 6일, 2차에 걸쳐 '2013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인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는 매년 세계 각

국의 청소년과 대학생을 초청, 한국의 역사 · 문화 등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앞으로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다.

재단은 차세대 동포의 육성을 위한 모국 연수를 1998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순례연수사업' 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재단은 올해 참가자들이 단순한 강의청취, 산업시찰, 유적지 견학 및 관광 차원의 연수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해보다 연수기간을 하루 연장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 함양을 통하여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이번 연수에는 중 · 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수에 6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연수에 400명 등 총 1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백제의 숨결이 느껴지는 몽촌토성과 올림픽공원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을 본부로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된다. 올림픽파크텔은 2008년 '최우수 청소년 수련시설' 로 선정되는 등 수준 높은 유스호스텔이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한류(韓流)와 한국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참가자 간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국 체험 통해 정체성 · 자긍심 키운다

올해 참가자들은 한국 구석구석의 지방 도시와 농촌 마을 등을 돌아보고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도 한다. 또한, 국내 참가자들의 학교를 방문해 교정을 둘러보고 '만남의 시간' 도 가질 예정이다.

모국연수의 백미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을 쉬는 지방의 농어촌 체험이다. 참가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농사 일손을 거들거나 어부체험을 하는 등 한국의 산하를 둘러보며 '신토불이' 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도 갖게 된다. 거주국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농사일의 수고로움도 느끼고 힘든 일을 함께하면서 우정과 협동 정신도 함양할 수 있다. 전통연 만들기, 사물놀이 배우기, 떡메치기, 옥수수 · 감자 쪄 먹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 것' 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하게 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모국 연수는 단순히 답사와 관광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서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다"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리더십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참가자 가운데 리더와 스태프를 선발해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참여하는 것을 유도한 것이다.

지난해 모국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연수를 마치고 저마다 "거주국에서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재단은 일주일간의 모국 연수를 마치면 참가자들에게 '모국연수 수료증' 을 나눠준다. 모국체험이 소중한 기억을 잃지 말고 또 하나의 조국을 가슴에 품었다고 자부하고 살아달라는 당부다.

초청연수 참가는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만 13세~23세(2013.7.1 기준)의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5일~4월 5일까지로 현지 공관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수는 총 9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구미, 대전, 안동, 천안, 속초, 춘천, 논산, 영천, 연천, 여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된 바 있다. 창

1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7월 16일~23일과 7월 30일~8월 6일, 2차에 걸쳐 '2013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를 개최한다.

2 참가자들은 직접 현장에서 농사 일손을 거들거나 떡메치기 등 하며 신토불이의 소중함을 체험할 예정이다.

3 '초청연수' 는 견학 및 관광 차원의 연수에서 벗어나 도시와 농촌 현장을 직접 방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와 2월 28일 오전 한국외대 회의실에서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 이해' 한국외대 첫 강좌 개설

재단, 중고생 · 대학생 찾아가는 이해교육도 대폭 확대

국내 차세대에 재외동포 인식 확산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벌인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의 확대 시행을 위해 대학 강좌 개설을 비롯한 대학 특강에 나섰다.

우선 지난 2월 28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과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는 한국외대 회의실에서 '재외동포 이해'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국외대에서는 2013년도 1학기부터 '세계사와 한국' 이란 강좌가 개설됐고, 2학기부터는 '세계의 한 민족' 이란 과목으로 명칭을 바꾸어 진행할 예정이다.

동 강좌에서는 세계사 속에서 한민족 이주 역사와 독립국가연합(CIS) 고려인, 중국 조선족, 재일코리안, 미주한인 등 각국 재외동포사회의 역사 · 문화 및 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양 기관은 미래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에게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두도록 하고, 이들이 720만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고자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 개설을 준비해왔다.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대학 내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 개설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 대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를 맡은 임영상 외대 교수는 "720만 재외동포에 대해 차세대 청년들의 인식이 너무 낮은 것은 국가적인 손해"라며 "세계사와 한민족의 이주를 비롯해 고려인, 조선족, 미주한인 및 재일 코리안의 이주사와 역사를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설된 이 강좌는 국내 재외동포분

야 전문가들의 초청 강연뿐만 아니라 동포 차세대를 직접 초청해 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강좌 일정에는 재외한인학회나 동포재단의 행사에 학생들을 참석시키고 동포 차세대와의 만남 등 학술적 제고와 재외동포와의 교류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3월 6일 한국외국어대 인문관에서 '세계사와 한국'이라는 제목의 재외동포 강좌가 첫 수업을 시작했다. 임영상 외대 교수가 세계사와 한민족의 이주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재단 임원들, 1학기 16개 대학특강

재외동포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6개 지역 15개 고등학교에서 3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단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대학으로 확대했다.

올해 특강은 14일 고려대 세종캠퍼스를 시작으로 1학기에 전국 16개 대학에서 진행되며, 재단 임원들이 대학을 직접 방문해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과 현황, 재외동포사회 형성 및 현안,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미래사회와 재외동포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은 대학생들에게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갖도록 대학에 재외동포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재단 임원들의 대학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재단 임원들은 3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19번, 국내 대학에서 강의한다. 재단 임원들이 만나는 국내 대학생들은 경희대(서울) 정치외교학과, 고려대(서울) 노어노문학과, 고려대(세종) 북한학과, 공주대(공주) 재외동포교육센터, 대구카톨릭대(대구) 정치외교학과, 동덕여대(서울) 중국학과, 명지대(서울) 청소년지도학과, 서강대(서울) 국제대학원, 선문대(천안) 국제유엔학과, 영산대(부산) 일본학과, 인천대(인천) 법학과, 전남대(광주) 정치외교학과, 한국외대(서울) 문화콘텐츠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성남) 한국학대학원, 한성대(서울) 교직학과, 홍익대(세종) 국제경영학과 학생들이다.

14일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남북문제연구 강좌에서 재외동포의 개념과 이주사, 동포재단의 역할과 모국과 동포의 협력 등에 관해 강의를 펼쳤다. 강의에 참가한 학생들은 재한조선족과의 공생, 재일동포 사회의 뉴커머 문제 등 동포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로 관심을 표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지구촌 한가족이라고 할 만큼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소양교육으로 재외동포를 알 필요가 있어 강연을 요청했다"며 "거주국에서 활약하는 동포들에 대한 소개로 앞으로 유학 등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은 재외동포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등을 새롭게 알게 돼 자부심과 친근감이 생겼다며 해외에 이렇게 많은 한민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재단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 세계는 같은 시간대로 움직이는 세상"이라며 "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함께 발전을 도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돕는 것이 강연의 취지"라고 말했다. 창

3.1절, 세계곳곳서 "만세" 동포사회 민족혼 기리다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94년 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침략에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섰던 선조의 뜻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동포사회 곳곳에서 열렸다. 동포사회에서는 8.15 광복절 다음으로 중요시하는 행사다. 동포들은 "역사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차세대에 3.1절의 숭고한 뜻을 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뉴욕 한복판에 태극기 물결

3월 1일 오후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서 한국의 항일 역사를 알리는 '뉴욕 3.1운동 프로젝트'가 펼쳐졌다.

3.1절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3월 1일 오후 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서 한국의 항일 역사를 알리는 '뉴욕 3.1운동 프로젝트'가 펼쳐졌다.

행사는 뉴욕대 1학년생인 홍승환(20 · 생물학), 우태영(19 · 언론학), 이윤재(19 · 환경학) 씨 등 3명이 준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맨해튼 유니온스퀘어에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기획했던 주역들이다.

행사에서는 한국 홍보 영상물 상영과 애국가 제창, 만세운동 재현, 독립선언문 낭독, K-팝 공연 등이 펼쳐졌다. 3.1운동 사진전과 비빔밥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미국에서 세계사를 배웠지만, 한국 역사는 일본 역사의 끝 자락에 '한국 전쟁' 이란 짤막한 제목과 함께 고작 한 문단만이 적혀 있었다"며 "따라서 3.1절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런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뉴욕한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뉴욕한인회관에서 3.1절 경축 기념식을 열었다.

워싱턴한인단체 기념식 공동 개최

워싱턴 3.1절 기념식을 워싱턴한인연합회, 버지니아한인회,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이 공동 개최했다.

2013년도 워싱턴 3.1절 기념식을 워싱턴한인연합회(회장 린다 한), 버지니아한인회(회장 홍일송),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회장 서재홍),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범수) 등 워싱턴 한인단체들이 공동 개최했다.

또한, 주미한국대사관과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가 행사 공동 후원자로 나섰으며, 우태창 워싱턴버지니아한인통합노인회장, 윤순구 총영사, 박윤식 워싱턴화랑동지회장 등 한인단체들이 제9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축사에서 "3.1절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한국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날"이라며 "그 정신을 되살려 이렇게 한인 단체들이 함께 기념식을 개최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윤순구 총영사는 박근혜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고 열린문한글학교의 배수민 학생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했다.

재일민단 통일과 한일 우호증진 결의

재일민단 도쿄 본부가 주관해 한국중앙회관에서 열린 '3.1독립운동 94주년 기념식'에는 민단 간부 등 150여 명이 참가, 민족의 자주 · 자존, 평화, 민주발전의 3.1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 민주적 남북통일 추진을 맹세했다.

김용도 도쿄 단장은 개회식 인사에서 "조국의 발전과 한일 양국의 우호친선을 통해 재일동포가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각수 주일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신 대사는 2월 25일 박 대통령 취임식에 1200명이나 되는 재일동포가 참가한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한국중앙회관에서 열린 '3·1 독립운동 94주년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민주적 남북통일 추진을 맹세했다.

중앙본부의 오공태 단장은 기념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안정 및 북한 주민의 생활구제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단장은 또한 "우리의 생활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양국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지역주민으로서 일본지역사회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고 한일 간의 우호증진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아르헨티나 "차세대에 3.1정신 심어줘야"

아르헨티나 한인회는 제94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1일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철 공사를 비롯한 공관직원들과 한인사회 단체장 및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관을 가득 메웠다.

아르헨티나 한인회는 3·1절을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노윤호 한인회장은 "94년 전 3.1 독립운동을 전개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3.1절을 맞아 우리 1.5세, 2세들에게도 선조의 정신을 심어줘 영광된 조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의 축사에 이어 부인회 회원들이 나와 3.1절 노래를 참석자들과 함께 합창하고 나서, 김관옥 초대 한인회장의 선창으로 만세 삼창이 진행됐고, 방종석 민주평통 남미서부회의 회장의 주도 하에 북한 제3차 핵실험 규탄대회가 이어졌다.

캐나다 "선조의 희생정신 후세에 전달"

캐나다 오타와 한인회는 3월 1일 주캐나다 대사관 강당에서 제94주년 3.1절 기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캐나다 오타와 한인회는 3월 1일 주캐나다 대사관 강당에서 3.1절 기념식을 열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은 주캐나다 대사관(대사 조희용)과 오타와 한인회(회장 차정자)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문종 오타와 한인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애국가 봉창에 이어 차정자 한인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희용 대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어 3.1절 노래와 오범식 전 해군제독의 만세삼창을 마지막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한인들은 "94년 전 3월 1일 우리 조상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후손들이 3.1운동의 정신을 물려받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1세대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창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북한 핵실험 규탄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장 9명은 2월 27일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를 위한 제1차 운영위원회가 2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운영위원장인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김정수 재단 기획이사를 비롯해 대륙별 · 국가별 11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올해 공동 대회장은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장이 맡았다.

홍영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 승은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 임도재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 황찬식 재중국한국인회장, 박세익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 김근하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올해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개최 일자, 주제, 프로그램 등을 확정했다.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세계 각국 한인회장들이 모여 모국과의 유대 강화와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다. 지난해 대회에는 74개국 329명이 참석해 지역별 현안을 논의하고 한인회 운영 사례 등을 공유했다

총연합회장들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난 후, 북한이 지난 2월 12일 강행한 3차 핵실험과 관련해 핵실험 중단과 핵시설 폐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로의 조속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재외동포재단–EBS '교육용 콘텐츠 활용' 협약

재외동포재단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신용섭)와 3월 14일 오후 EBS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재단의 해외네트워크와 EBS의 교육용 콘텐츠를 상호 활용하여 전 세계 1천900여 개 재외한글학교에 양질의 한글 및 역사 · 문화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재단은 향후 EBS 교육 콘텐츠를 수록한 DVD 등을 전 세계 재외한글학교에 배포하고,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사이트인 '스터디 코리안(http://study.korean.net)'과 연계해 온라인상에서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교육 여건 등 현지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재외동포재단은 EBS와 3월 14일 오후 EBS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의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

을 통해 민족 정체성 유지와 국가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에서 720만 재외동포의 역량 결집을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히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교육 및 우리 역사 · 문화 교육에 대해 혁신적 개선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개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올해 제7회 세계한인의날을 맞아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며, 사진 주제는 '코리아 타운', '재외동포 삶의 현장' 두 가지 분야로 전 세계에 형성돼 있는 코리아타운(한인타운)의 전경사진, 이국땅 직업(사업) 일선에서 일하는 재외동포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약 3개월간 진행되며 www.korean.net 및 www.okf.or.kr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입상작은 상장과 상금(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입선 10명 각 30만원)을 수여한다. 또, 응모작 중 우수작 100여 편을 선정해 10월 5일 세계한인의날을 즈음하여 국내 전시회를 개최해 일반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김경근 재단 이사장은 "오는 10월 5일 세계한인의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사진 공모전에 재외동포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과 국내 사진전시회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외한인학회, 사단법인으로 새 출발

재외동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재외한인학회가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아 새로 출발했다. 학회는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당에서 사단법인 설립 기념대회를 갖고 학회의 '3.0 시대'가 시작됐음을 대외에 알렸다.

재외한인학회는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강당에서 사단법인 설립 기념대회를 열어 학회의 '3.0 시대'가 시작됐음을 대외에 알렸다.

1988년 창립한 재외한인학회는 국제정치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역사학, 문화콘텐츠학 등 다양한 학문 전공자들이 재외한인, 입양 동포, 국내 다문화사회 등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이다.

학회는 25년 동안 기관지인 '재외한인연구'(29호) 발행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논문을 국내외에 소개한 것은 물론 총서를 발간해 왔다.

이밖에도 우수 학술논문 · 저술상 시상식 개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연구 수행,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며 명실상부하게 재외동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이진영 재외한인학회장(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1월 29일 외교부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2월 14일 법인 등기를 완료해 재외한인학회의 3.0 시대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최고의 학문기구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한인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만큼 대한민국의 국력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포재단도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행사가 우리 사회의 재외한인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기념대회는 초대 학회장을 맡은 이광규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과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지루한 천국은 없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지루한 천국,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라고들 말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 야근과 모임이 잦았던 한국 생활을 그리워하는 동시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현재 삶을 안도하는, 긍정의 볼멘소리가 아닐까 싶다.

모름지기 가장의 밥벌이는 숭고한 것이라서 설령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내조라 여겨왔다. 성공한 가장의 이야기에 아버지 얼굴 보기 어려웠다는 자녀와 가사일 구석구석을 홀로 담당해야 했던 아내의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은 듯하다. 바깥세상에서만 잘해도, 아니 바깥세상에서만 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건데. 결국 '재밌는 지옥'이라는 역설에는 밥벌이의 고통, 가족의 인내가 뭉뚱그려져 있을 것이었다.

'패밀리 맨'이 성공하는 사회

미국은 어떠한가. 가족에게 헌신하는 이른바 '패밀리 맨'이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선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 파티에 가고,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는 아버지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을 잠시 접고 단기 취업으로 지난해부터 보스턴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출근하는 오진후 씨(37)는 고위직부터 말단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책상이나 작업장에 가족사진을 걸어놓은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작은 사물함 하나가 주어지더라도 가족사진을 먼저 오려 붙여 놓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오 씨 역시 평범한 미국의 가장들처럼 퇴근하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간혹 동료애를 서슴없이 드러냈던 한국의 회식문화가 그립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매일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될 수 있으면 오래 즐기고 싶다고 한다.

오 씨는 결혼반지를 끼지 않는 기혼자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이곳 분위기에도 적응 중이다. 한국에서는 답답해서 벗어두었던 결혼반지도 이제는 매일 하고 다니게 됐다고 한다.

"이래서 미국인들은 편하게 늘 낄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순한 결혼반지를 끼나 봅니다."

성별을 막론하고 기혼자의 자상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는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된다. 또한, 배우자에게 어떤 지지와 평가를 받느냐는 정치인의 인격을 가늠하게 한다. 가정을 존중하는 미국 사회 풍토는 일을 그만두게 될 때에도 엿볼 수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관료들이 사퇴할 때 "가정을 더 돌보고자,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등의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그만두는 진짜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간에 이것이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점잖은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가에서는 이를 워싱턴 표

준 변명(standard Washington excuse)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물론 표면상 이유가 아닌 진짜 가족들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관료들도 있다. 부시 정부에서 일했던 아리 플라이셔 전 백악관 대변인, 메리 매틀린 부시 대통령 보좌관을 비롯하여 미국무부 핵심 중 한 명이었던 앤 머리 슬로터 프린스턴대 교수 역시 그러했다. 페미니스트였고 여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슬로터 교수는 14살 된 사춘기 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조금은 구구절절한 사연을 잡지에 게재하기도 했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비난을 의식해서일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뜻을 존중했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물론, 미국인들도 국가를 위해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중도에 하차하는 것은 의아하게 바라본다. 그러나 배우자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거나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이유 자체는 존중을 받고 이해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한국에서라면 많은 사람이 남자로서 큰일을 하기 틀렸다는 둥, 비겁하다는 둥, 여자는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깎아내렸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최근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을 사퇴하며 대통령에게 '아내가 울고 있다' 며 하소연한 일도 그가 한편으로는 미국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해본다.

가족과의 충실한 시간이 중요

성별을 막론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일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즉, 아이들은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인지, 가족과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저 '워싱턴 표준 변명' 이 비단 정가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 누군가에게는 진실로 필요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편견을 버리고 진정으로 존중해줄 수 있는 풍토가 생기면 좋겠다.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단점을 극복하고 선진국 대열에도 바짝 다가서고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으리라 믿어본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인들이 그렇게 가정을 중하게 여긴다면 한국과 1,2위를 다툴 정도로 이혼율이 왜 그리 높으냐? 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가정의 삼분의 일이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활동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조사를 인용한다. 오히려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갈등 발생의 기회가 더 많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미국이 '지루한 천국' 이라는 말에 마냥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을 것 같다. 가족과 함께 하도록 주어진 시간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해 허투루 보내는 법 없이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말에 동감한다면 말이다. 창

수 양(Sue Yang) 보스턴 〈재외동포의 창〉 통신원

투자 · 전문인력 이민 늘어 주류 진출 활발한 캐나다 한인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 50주년을 맞으면서 캐나다 한인사회도 주류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등 모국과 캐나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김근하(65)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이민 역사가 쌓여가면서 1.5세, 2세의 주류사회 진출도 늘었고 동포사회도 업그레이드 됐다"고 수교 50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캐나다에는 약 25만 명의 동포가 살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이민 정착지들을 제쳐놓고 캐나다를 삶의 보금자리로 선택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캐나다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서다.

연아 마틴(가운데) 상원의원의 후원과 함께 캐나다 중앙 정계를 두드리는 젊은 한인들. 안젤라 옥 (왼쪽부터), 그레이스 시어, 제니퍼 우, 브라이언 정 씨.

캐나다 땅에 맨 처음 발을 디딘 이는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에스더(김정동) 부부로 알려졌다.

1963년 한국-캐나다 수교 이후 조금씩 이민이 늘어났다. 그러나 60년대 중반에는 캐나다 이민법 자체가 아시아인에게 폐쇄적이었기에 미국 혹은 독일 등 제3국을 경유한 이민이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인 이민은 70년대 들어서부터다. 정영선 씨는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최초의 한인이다. 1955년 퀘벡주로 이민 와서 57년 4월 17일에 시민권을 획득했다.

70년대에는 주로 취업이민이 많았고, 80년대에는 투자이민이 늘어났다.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전문인력의 독립이민이 느는 추세다. 한국에서 다양한 직장 경력을 쌓았거나 첨단 분야의 기술이 있으며 자본과 사회경험이 있는 이들은 정착 초기부터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취업과 투자이민 선배들과 달리 영어와 불어를 먼저 배우고 현지 사회를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편의점, 채소가게, 식당, 화원, 세탁소 등에 한정됐던 동포사회의 업종을 다양, 다각화시켰다. 또한, 대부분이 젊은 30~40대인 전문인력 이민자들은 타 민족사회와도 다방면으로 교류하면서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위상 변화는 그간 한국의 경제적 · 문화적 위상이 높아진 덕도 있지만, 거주국 안착을 위한 이민 1세대의 성실한 노력과 1.5, 2세대들의 다양한 전문직 진출로 캐나다 내 한인 이미지가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8년에는 한인 1.5세인 연아 마틴(한국명 김연아 · 48) 의원이 이민사 최초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기도 했다.

캐나다한인총연은 수교 50년을 기념하고 그간의 자취를 돌아보고자 오는 7월께 국내에서 공연단 등을 초청해 문화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토론토한인회의 주도로 한인 이민사도 편찬된다.

대부분의 한국계 캐나다인들은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에드먼턴, 캘거리 등에 살고 있으며, 가장 집중된 곳은 토론토다.

김 회장은 "캐나다 한인들은 초창기 많은 차별을 견디며 오늘날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게 된 것은 한민족의 끈질긴 저력 덕분"이라고 술회했다. 창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영남 / 호남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을 꼽으라면 '지방색' 이라든가 '지역감정' 과 같은 것이다.

'영남 지방' 은 경상남북도를 가리키고, '호남 지방' 은 전라북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것이다.

우선 '영남' 이라는 말은 '재 령(嶺)' 자와 '남녘 남(南)' 자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영남 지방' 은 어느 재, 즉 어느 고개의 남쪽이라는 말일까?

많은 이들이 대관령(大關嶺)의 남쪽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대관령이 남쪽이 아니라 '조령' 다시 말해서 문경 새재의 남쪽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호남' 이라는 말은 '호수 호(湖)' 자와 '남녘 남(南)' 자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호수 호 자를 쓴 것은 호수라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호강(湖江)' 이라고 불리던 강의 남쪽이라는 뜻이다. '호강' 은 지금의 '금강' 을 말하는데, 금강 이남 지역을 가리켜서 '호남 지방' 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호남 지방' 이라는 말은 원래는 공주나 부여 같은 충청도의 일부와 전라도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재 행정구역상 전라남북도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것이다.

당나귀 / 나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옛날 동요 가운데 '아버지는 나귀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하고 부르던 노래도 있다. 이 동화와 동요에 각각 나오는 '당나귀' 와 '나귀' 는 무슨 차이가 있는 말일까?

'당나귀' 는 말과에 속한 짐승인데 아프리카 야생종을 가축화한 것이라고 한다. 말과 비슷하지만 좀 작고, 앞 머리에 긴 털이 있다. 그리고 '당나귀 귀'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귀가 길고 그 모양이 독특하다. '당나귀' 는 체질이 강해서 병에 잘 안 걸리고 참고 견디기를 잘해 부리기에 알맞은 가축이다. 우리나라에는 당나라를 거쳐 들어왔는데 '당나귀' 라는 이름은 바로 당(唐)나라에서 들어온 나귀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당나귀' 를 줄여서 그냥 '나귀' 라고도 부른다. 결국 '당나귀' 와 '나귀' 는 같은 동물이다.

당나귀의 귀에 관한 속담으로 '당나귀 귀 치레'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당나귀는 체격에 비해 귀가 지나치게 큰데, 그 큰 귀에 치레를 하는 것과 같이 쓸 데 없고 어울리지 않는 치레를 한다는 뜻이다.

벌초 / 금초 / 사초

우리 속담에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와 별 관계가 없다는 듯이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성의 없이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벌초(伐草)' 라는 말은 무덤의 잡초를 베어서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보통 한식 때나 추석 때 또는 기일에 맞춰서 성묘하러 가곤 하는데, 성묘 가기 전에 벌초를 하게 된다.

이 '벌초' 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으로 '금초' 와 '사초' 라는 말이 있다. '금초(禁草)' 라는 말은 '금화벌초(禁火伐草)' 라는 말의 준말이다. 즉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리고 '사초(沙草)' 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떼를 입혀서 잘 다듬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주류사회 봉사와 참여로 한인 위상 높인다

그레이스 유 한미연합회 사무총장

그레이스 유

"탈북 고아를 돕는 법이 지난 1월에 의회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가 됐습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미국으로 입양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도우려면 한국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옹호,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1983년 설립된 한미연합회(KAC)의 사무국장인 그레이스 유(42)는 최근 방한해 "탈북 고아를 도우려면 통일부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2005년부터 한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수민족으로 차별받는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탈북고아 입양법으로 알려진 'HR 1464' 법은 지난 2009년 발의해 상 · 하원을 통과하는 데 3년이 걸렸다. 중간에 법안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 어린이 복지법'으로 발효된 이 법은 탈북 고아뿐만 아니라 북한을 탈출한 어린이들과 북한 출신 엄마와 중국인 아버지와 같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 사무총장은 "탈북해서 제3국에 있는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하려면 한국 정부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탈북자와 그 가족에 관한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네 살 때 가족을 따라 이민 온 1.5세인 그는 UC리버사이드 대학에서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판사 밑에서 3년간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한미연합회에 합류했다.

아동법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그는 "중국과 몽골, 캄보디아 등으로 흩어져 있는 탈북 고아들은 1천 명도 안되지만, 국적이 붕 떠 있어서 돕기가 쉽지 않다"며 "법 통과 후 시행까지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회는 인권과 복지뿐만 아니라 한인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LA의 선거구가 재조정 되면서 코리아타운이 세 개로 쪼개진 것에 대해 한인들의 표 결집을 막기 위한 정치 농간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선거구를 재조정 하기 위해 소송 중으로 한인사회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찰서 구역을 정할 때도 코리아타운이 하나의 구역이 되면 한국말이 가능한 경찰을 채용하게 되듯이 선거구가 하나로 뭉쳐야 한인들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모국의 눈부신 발전에 늘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는 "한국 사회도 재외동포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며 "한국은 60~70년대 고생하던 때와 달리 국제적 위상도 커진 선진국이다. 그에 걸맞은 책임의식과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미연합회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의 굶주림 문제를 극복하자"는 뜻을 담고 있는 T.H.I.N.K(Topple Hunger In North Korea) 프로그램을 계속해 왔다. 유 사무총장은 "진취적이고 열정을 가진 모든 분을 T.H.I.N.K. Ambassador로 선정해 북한의 기아와 인권 남용의 심각한 문제를 자세히 알리는 캠페인의 주역으로 세울 계획"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창

북구의 하늘

지한나(스웨덴) 2011 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

북구의 하늘과 고향의 하늘은 다름없건만
사람들 생김새는 가지각색으로 낯설어
초록색 눈동자 금발머리 푸른 눈동자 갈색 머리
검은 눈동자와 머리카락 늘 머리에 수건 쓴 사람들
흑백 황적색의 인종이 뒤섞인 도시에는
모두 자기 외로움의 구름 모자를 쓰고 있어
동네 광장에는 술 중독자들이 술병 허리에 차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노닥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주정뱅이가 바이올린을 켜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본토인보다 이민자가 더 많아진
이 동네 이방인의 언어는 바벨의 혼돈
소통 없는 소음의 도시 위로 표류하는 그들 속에
술꾼이든 춤꾼이든 무엇이든 되고파

벚꽃이 곧 천지에 흩날릴 그곳… 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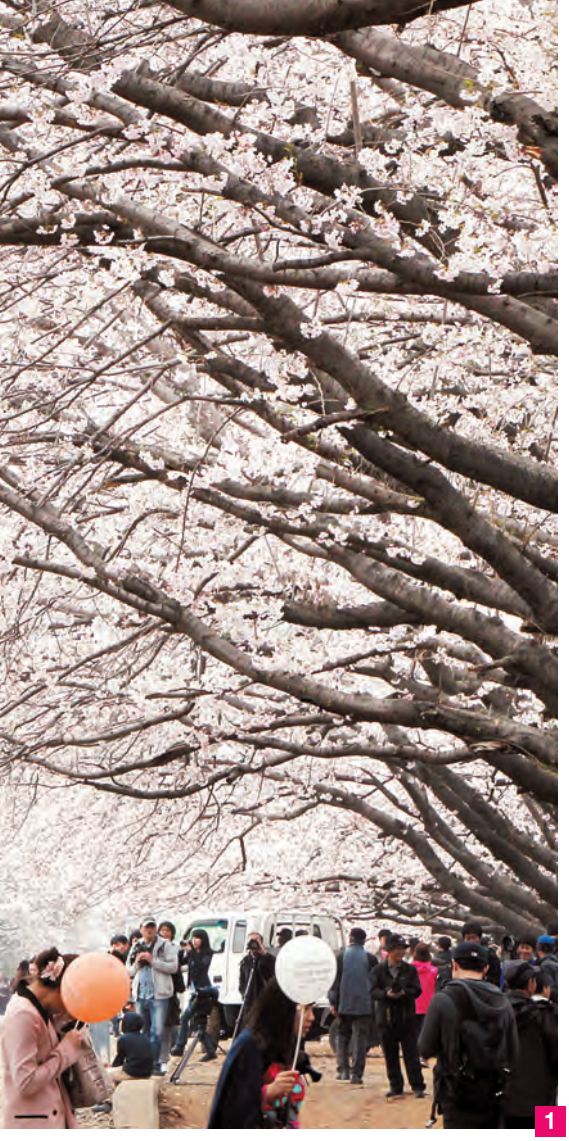
무릇 꽃은 봄의 시계이다. 동백꽃,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벚꽃이 차례로 봉오리를 열어젖히며 봄이 어디쯤에 있는 지를 알려준다. 시기마다 꽃들은 다른 색깔로 각기 매력을 뽐내지만 이중에서도 봄의 대표 주자를 꼽으라면 역시 벚꽃이다.

창원시 진해는 하동 십리벚꽃길, 청주 무심천변, 서울 여의도 윤중로와 함께 벚꽃의 대표 명소로 통한다.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거리 여기저기에서 벚나무들이 화사한 연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며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해마다 봄만 되면 상춘객들이 너도 나도 이곳을 찾아드는 이유이다.

'봄의 도시' 진해에는 화사한 봄이 찾아왔을까? 재촉한다고 봄이 서둘러 올까마는 차갑고 긴 겨울이 어서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 상춘객의 오감(五感)은 봄기운과 봄의 냄새와 빛깔을 찾기 위해 잔뜩 곤두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봄을 찾았다. 봄은 이미 찾아와 있었다. 포근한 공기와 특유의 싱그러운 냄새가 이미 찾아온 봄을 알리고 있었다.

제황산 공원에도 로망스 다리에도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봄기운이 감돌았다. 개천을 따라서는 물이 '졸졸' 거리며 흘러가고 유채는 초록빛 싱그러운 잎으로 물길을 장식했다. 거리의 사람들도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느리게 발걸음을 옮겼다.

올해 101주년을 맞은 러시아풍의 진해우체국, 정갈한 풍경의 중원로터리, 김구 선생 시비가 있는 남원로터리, 멀리 평온해 보이



1 전국 최대의 벚꽃축제로 매년 봄에 열리는 진해군항제에는 온통 벚꽃세상으로 변한 진해를 보려 전국에서 상춘객들이 몰려든다. 이곳의 왕벚나무는 수십만 그루에 이른다.

2 진해의 명물 중 하나로 건립 101년 된 러시아풍의 진해우체국.

3 진해는 해군 기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창원해양공원에 있는 군함전시관은 퇴역 구축함인 '강원함'에 직접 탑승해 해군들의 함상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4 소사마을은 깨알 같은 추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허름하지만 정감 있는 골목길과 다이얼 전화기, 진공관 라디오, 조립식 장난감, 학용품 등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옛날의 물건들이 향수를 자극한다.

5 진해루는 해안가에 위치한다. 누각에 오르면 바다와 주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따스한 햇살 쏟아지는 봄날이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즐긴다.

는 진해만(灣)의 풍경도 손에 잡힐 듯 내려다보인다.

모노레일카 아래를 굽어보니 제황산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365계단에서는 나란히 손을 잡은 연인들과 운동복 차림의 주민들이 천천히 발걸음을 떼고 있다. 머지않아 벚꽃과 개나리가 피어나 계단 주변을 장식하는 상상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제황산 꼭대기의 진해탑 전망대에서는 시내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진해의 왕벚나무는 일제가 군항을 건설하면서 심었지만 해방 후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베어졌다. 그러나 왕벚나무 원산지가 제주도로 밝혀지면서 1970년대에 다시 심기 시작했고, 현재 진해에 있는 왕벚나무는 수십 만 그루에 이른다.

날씨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벚꽃 개화 시기에는 제황산 공원과 로망스 다리, 경화역, 내수면 환경생태공원, 안민도로 등 진해 어디를 가든지 탐스럽게 피어나 연분홍 꽃잎을 흩날리는 낭만적인 왕벚나무를 만날 수 있다.

이렇듯 매년 왕벚나무가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릴 때 진해에서는 한바탕 벚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창원시는 군항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 '한류 문화 체험 프로그램', '코리아 웰빙 푸드 체험전', '한류 문화 콘서트' 등 외국 관광객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군함전시관은 퇴역 구축함인 '강원함'에 직접 탑승해 해군들의 함상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2천500t급의 강원함은 1944년 미국 뉴욕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한국전쟁에 참전해 6개월간 활동했으며, 1978년 한국에 인도돼 우리나라 바다를 지켜 왔다.

음지교를 건너 창원해양공원에 들어서면 정박해 있는 늠름한 모습의 군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거대한 군함은 2000년 퇴역한 구축함인 '강원함'으로 길이가 119m, 높이는 34m에 달한다. 족히 축구장 크기만큼 되는 셈이다.

해양생물테마파크는 바다 속 신비의 세계를 탐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유영생물전시실과 저서생물전시실, 체험실과 영상실 등이 있다.

진해시의 색다른 체험마을인 소사마을은 1970~80년대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타임머신이다. 시골 마을에 조성된 옛 풍경이 미소를 짓게 하는 공간이다. 창

2013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향후 재외동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재외동포 청소년 ·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 사업을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 재외동포 청소년 ·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호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모국의 사회 · 문화 · 역사를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십 함양의 계기를 제공하는 '2013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연수'에 재외동포 청소년 · 대학생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연수개요

1. 연수 기간
   - 1차(중 · 고등학생, 600명) : 7.16(화)~7.23(화) 〈7박8일〉
   - 2차(예비대학생 · 대학생, 400명) : 7.30(화)~8.6(화) 〈7박8일〉
2. 장소 : 서울 및 지방
3. 연수 대상 :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 및 대학생
   - 만13세~23세 (2013.7.1 기준, 단, 러시아 및 CIS지역은 만15세~23세
4. 지원자격
   - 거주국적자, 영주권자,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자녀 등의 자격으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 한-베트남 혼혈, 한-필리핀 혼혈 등 포함, 유공동포 후손, 고려인 후손, 조선족 동포 등으로 모국방문 기회가 없었던 자
   - 재단 또는 타 기관의 모국방문 연수에 참가 기회가 없었던 자
   - 재외동포 사회 기여도 및 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 합숙 연수에 지장이 없는 심신이 건강한 자
   - 해외 출국에 관한 주재국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재학 중인 학교장의 추천 및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자 (지원서에 추천자 동의서 제출)
5. 신청기간 : 2월 25일 ~ 4월 5일
6. 문의 : 재외동포재단 차세대팀 김주동 대리

   전화 : 82-2-3415-0175, 팩스 : 82-2-3415-0118

   email : gkyn@okf.or.kr

   관련 웹사이트 : www.korean.net

독자후기 _ 김규언 경기도 고양시

안녕하세요. '재외동포의 창'을 잘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즘에는 해외에 우리 국민이 진출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 '조선족' 분들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재외동포의 창 지면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조선족에 관한 기사를 싣게 되면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도 포함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조선족은 우리 동포인가요? '중국 동포'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 최근 국내에서 이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조선족이 특별히 다른 집단에 비해 범죄 등 문제가 많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편견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 국민과 동포들이 조선족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나요?

항상 좋은 글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독도 공식 웹사이트 http://dokdo.mofat.go.kr/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 · 지리적 ·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는 60여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

720만 재외동포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